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약초유품 약초유

이 약초유품은, 앞장인 제4장 신해품에서 마하카사파(摩訶迦葉)를 비롯한 네 사람의 큰 성문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 석존께서도 역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지상의 식물과 그 위에 내리는 은혜로운 비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약초유(藥草喻)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는 약초란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가 깊은 식물로 모든 식물을 대표한 것이다. 구마라지바(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에서 약초유는 다음과 같다.

3천大千세계의 온갖 곳, 산과 강 골짜기와 평지에는 여러 가지의 풀, 나무, 약초가 무성해 있다. 거기에 큰 구름이 몰려와 일시에 비를 뿌리면 초목은 크든 작든 모두 한결같이 그 비에 젖

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마치 여러 식물들이 자기들의 상·중·하라고 하는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의향을 살펴 아무렇게나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는 아니했던 것이다.

이상의 비유 이야기 뜻은 방편론, 비유론, 신해품으로 차례 차례 살펴보면 곧 분명해진다. 제2장의 방편론 이래로 설해온 방편과 진실이라는 테마가 여기서도 새로운 비유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3승방편 1승진실의 취지를 살피자라도 이 약초유품에서는 지금까지와 조금 시점이 다르다. 방편의 가르침과 진실의 가르침 즉, 특히 방편

부처님 설법은 평등한데...

중생의 소질과 능력 맞게 방편 제시

어 저마다 자기가 가진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생각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도 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큰 음성을 내시어 널리 전 세계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는 것도 이 큰 구름이 3천大千세계의 국토를 덮고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부처님은 중생의 소질과 능력을 모두 아시고 각각의 중생에게 가장 알맞은 법을 설하신다. 그것을 들은 중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불도(佛道)에 들어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一相一味)이다. 그것은 동일한 해탈, 동일한 이욕(離欲), 동일한 열반이어서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법을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 가르침에 시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에 비유되는 부처님의 설법은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내린다. 그것은 본질과 작용이 하나, 즉 1상1미이며 본래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법은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중생에게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다. 큰 나무는 많은 양의 비를 흡수하나 작은 것은 작은 양만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생 측의 차이에 의해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라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설법에 즈음하여 중생의 현 상태를 인식했을 때, 진실한 가르침은 어떤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의 큰 자비가 사랍과 경우에 따라 교묘하고도 현실적인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중생 측의 현실에서 보면, 법화경의 1승진실이라는 뜻과 반대로 3승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무설정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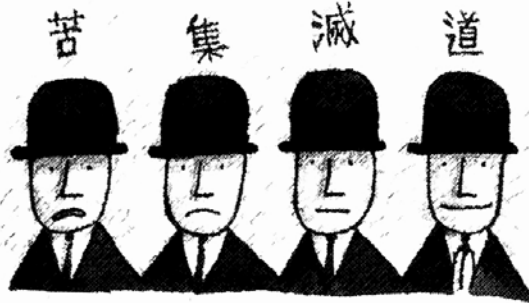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물 주고받음 통해 자연 순응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수수관계와 사성제

법학들의 별자리들이 언제나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별이 제 나름대로 공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별자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현재 국자처럼 보이는 북두칠성도 10만년쯤 지나면 국자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별들은 움직여야 하는가?' 이 의문은 '위치'·'고정된 별은 존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이에 대한 답은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이다. 만약 한 별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별을 이 별 가까이 가져다 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두 별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충돌로 모두가 폭발로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충돌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서로 회전 운동을 하든지 또는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 비껴 지나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두 별이 서로 묶여 쌍성이 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흩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별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비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별들 사이에 직접 충돌이나 은하들 사이의 직접 충돌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실제 관측에서 별들 사이의 충돌은 잘 보이지 않으나, 크기의 규모가 10만 광년이나 그 이상인 은하들의 충돌은 많이 관측된다. 물론 비껴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은하의 직접 충돌도 우주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만약 상호간에 인력의 주고받음이 없다면 성간 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면 우주는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될 것이며, 지구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주에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있기에 넓고 먼 우주의 빛을 바라보며 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우주의 신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 내 만물은 서로간에 주고받음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 적응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상의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곧 연기이다. 이때 연은 상의적 초기 반응의 위상이고, 기는 외부 반응에 대응하는

후기 위상으로 순응, 적응을 통해 새로운 초월체를 달성한다. 그래서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가 하나 되어, 구세 세계가 서로 일체화되어 영원이 한 순간이고 한 순간이 영원이 되는 상의적 통일성이 달성된다. 쌍둥이 니까야에서 세존은 "여실한 것, 허망하지 않은 것, 다른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연기다"라고 했다. 이처럼 연기란 구체적인 상의적 수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기 사상에서 우리는 광의의 사성제를 볼 수 있다. 즉 만유의 상의적 수수관계는 일반적인 연기에서는 첫째 조우, 섭동에 의한 변화의 발생은 곧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사건 발생으로 변화과정을 이어가는 고(苦)에 해당한다. 발생한 사건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변화의 효과는 누적되어 가는데 이것은 섭동의 누적 효과로서 집(集)에 해당한다. 섭동의 누적 효과로 각 개체는 초기에 지녔던 고유 특성이 상실되면서 개체간의 차별과 모순의 대립이 사라지는 멸(滅)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를 거치면서 만유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지닌 자연의 조화로운 섭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道)이다. 이처럼 사성제란 자연의 상의적 수수관계라는 연기에 따른 진화의 이 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성제를 인간 세계에 국한시킬 때는 고가 고통, 생, 사, 회, 비, 애, 락 등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 상태를 나타내고, 집은 고의 원인으로 상태를 해방하며, 멸은 무명을 없애 버림이고, 도는 무명을 멸하는 방도를 터득하여 적정열반에 이르는 뜻이다. 그러나 불법은 중도사상을 기본으로 함으로 인간 위주의 고통이나 무명이라는 제한적인 한 번에 치우쳐 사성제를 논하는 온당치 못하며, 보다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견지에서 사성제의 본질을 광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은 고의 근본 뜻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성제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무명의 공에서 유형의 실체가 탄생된다. 이것은 타자와의 상의적 수수관계, 즉 인연을 통해 변화하며 진화하다가 언젠가는 무명의 공으로 돌아간다. 일단 유형의 실체가 생기면 상의적 관계에서 변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곧 만유의 존재에 대한 넓은 의미의 고(苦)변화이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서 고는 불안정한 상태를, 집은 불안정한 누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통과 집은 불안정한 실체 세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멸은 불안정한 소멸 단계를, 도는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멸과 도는 불안정한 실체 세계가 안정된 세계로 이행하는 이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
조우와 섭동이 없다면
우주는 암흑세계 돼

이렇게 들었다

도를 지키다 죽을망정...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2일 밝힌 서울시내 10개 중·고교생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부패·반부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1.3%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9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는 정치권-기업-공무원-법조계 순으로 지목했다. 우리 청소년의 윤리관과 사회 인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그 지유책을 찾아보자.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善)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뒤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 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사탄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 방법은 생각하지 마라. <술요경>

■사람의 마음이 곧은 것은, 금과 같이 귀하다. <재법집요경>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베풀면 큰 재물을 얻으며 거짓없이 진실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은혜로우면 착한 벗을 얻게 되느니라. <잡아함경>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어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옷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갈 때 질서가 있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장아함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일주문(One Pillar Gate), 사천왕문(Four Guardians Gate), 불이문(The Gate of Non-Duality)

A visit to a typical temple usually begins by passing the first gate which is called 'One Pillar Gate'. Then he passes to the second, 'Four Guardians Gate'. Here the four awesome protectors of the temple greet him. Nearby is the third gate called, the Gate of Non-Duality. (격식을 갖춘 사람은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을 지나는 것으로 경내로 들어서게 된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지나는데, 이곳에는 위엄을 갖춘 불법을 외호하는 4명의 신장들이 있다. 그 가까운 곳에는 세 번째 문인 불이문이 있다.)

대부분의 사찰 초입에는 일주문이 있다. 좌우 하나의 기둥만으로 지붕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불여진 이문이다. 이 문은 번뇌를 흩어주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다음으로 사천왕문이 있다. 불법을 외호하는 신장인 사천왕은 반로는 마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돼(A fierce countenance and trample the opponents of Buddhism under their feet) 있다. 사천왕문 가까이에 불이문이 있다. 이 문은 두 세계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둘도 아닌(not different from one another, non dual)을 상징하고 있는데,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감(passing from the secular world into the awakening world)을 뜻한다.

禪과 21세기

"편지에 보니 초심스럽게 이 한 개 큰 인연(因緣)을 다 밝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금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하게 서둘러 오히려 늦어집니다. 또 늦추어서도 안되니 늦추면 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거름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해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때때로 살피서 파악하되, 내가 남과 함께 하고 그들과 바르고 굽음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입은 것이며, 결국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살피고 또 살피다 보면, 평소 애생소하면 길이 저절로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애생소하면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저절로 생소하게 됩니다.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5은(蘊)과 6근(根)과 12처(處)와 18계(界)와 25유(有) 위에 무명의 업식(業識)으로 사랑하고 헤아리는 심식(心識)이 밤낮으로 찬란하게 빛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영시랑(榮侍郎)에 대한 답서

나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의 뜰도 없이 피어오르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세간법(世間法)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다. 세간법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익혀 왔다. 그러므로 세간법에 관해서는 이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습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적

하며 힘들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 순간의 뜰도 없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意識)이 세간법이다. 불법(佛法)은 이러한 세간법과 본래 동일한 하나로서만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간법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불법은 나뉘지



김태완 부스대 강사·철학

차별되지 않고, 주관과 객관이 나뉘지 않으며, 나와 남이 나뉘지 않고, 선택하거나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달리 욕망할 것도 없고, 욕망이 없으니 좌절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거나 옳음과 그름을 나누거나 좋음과 나쁨을 나누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갈등도 없고,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 따로 없으므로 원하거나 힘들게 추구할 것이 없다.

다. 어리석음이 나오는 곳에서 지혜도 나오고 나아가 삼라만상의 온갖 법이 나온다. 그 까닭에 일체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아상(我相)이 중심이 되어 익힌 습(習)에 따라 세간법을 살아가므로, 세간법에는 익숙하지만 불법에는 낯설기가 그지 없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미리 세간법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불법이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불법의 공부는 아무런 예상이나 추측도 없이 막연히,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길게 갖게 다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충분히 저서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전혀 뜻밖에 문득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생소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가 새 때문이지만, 불법이 익숙하게 될수록 오히려 세간법은 생소하게 되어 간다. <http://www.mindt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0-1459(김태완), 011-9520-0064(이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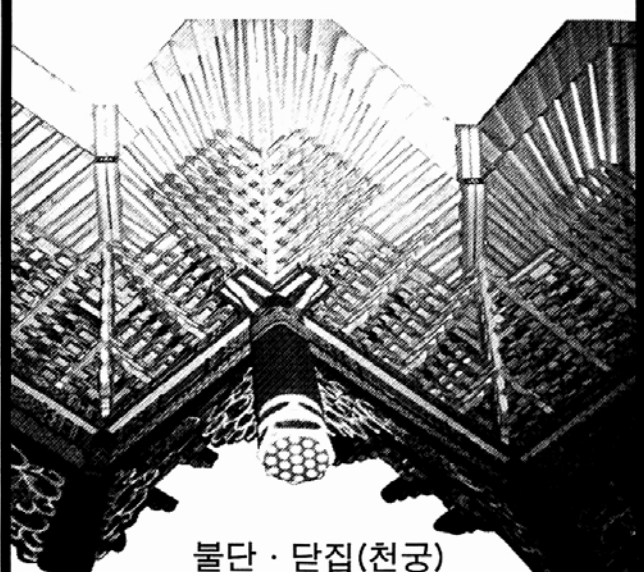
미리 예상하거나 추측하지 말라

“ 세간법과 불법 나눌 것이 없지만 사람이 어리석어 불법은 보지 못하고 세간법만 보고 있다 ”

세간법과 불법이 본래 하나로서 세간법이니 불법이니 하고 나눌 것이 없지만, 사람은 어리석어 불법은 보지 못하고 세간법만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란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역시 그 자체 법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리석음이 나오는 바탕과 지혜가 나오는 바탕은 동일한 하나의 법이



누리공방



불단·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